

지역 기업들 “새해, 기대감보다 걱정이 더 크다”

경제지표 내년 상반기 ‘악화’ 전망에 지역 경제계 ‘암울’ 제조업 1분기 체감경기 하락...5분기 연속 기준치 밑돌아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앞두고 있지만 지역경제계는 기대와 실망보다 걱정이 더 앞서는 분위기다. 내년 상반기 지역 산업계의 각종 경기전망이 개선되지 않고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 사태로 심각한 위기를 맞았던 올해보다 내년이 더 험겨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광주상공회의소가 광주지역 123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 1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

를 조사한 결과 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72'로 집계됐다.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는 기업의 매출, 생산 등 주요 경영활동의 결과와 전망을 지수화한 지표로, BSI가 100 이상이면 전월보다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고, 100 이하면 그 반대를 뜻한다.

내년 1분기 BSI 지수는 올해 들어 가장 낮았던 3분기(75)보다 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광주지역 제조업체 체감 경기는 5분기 연속 기준치를 밑도는

등 나아질 기미가 없어 보인다. 올해 4분기 실적도 '68'에 그쳤다.

업종별로 보면 식음료(70), 철강·금속가공(50), 기계·금형(74), 자동차·부품(59), 고무·화학(64) 등 대부분 업종이 기준치를 밑돌았다.

기업 규모별로 대·중견기업은 56, 중소기업은 74로 집계됐다.

또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지역 내 종사자 수 5인 이상 제조와 비제조업체 501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12월 광주·전남지역 제조업업황BSI' 자료를 보면 이달 BSI 지수는 65로 전월 대비 4포인트 떨어졌다.

내년 1월 업황전망BSI도 64로 떨어지는 등 내년 연초부터 지역 제조업계의 경기전망은 암울할 것으로 전망됐다.

업황 BSI는 경기가 좋다고 응답한 업체 비율에서 나쁘다고 응답한 업체 비율을 뺀 뒤 100을 더한 값이다. 기준치(100) 이상이면, 긍정으로 답한 업체 수가 부정 응답 업체 수보다 많고, 이하는 그 반대다.

여기에 내년 광주지역 주력 산업의 수출 전망도 어두워지면서 경제계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광주상의가 최근 광주지역 103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수출기업 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내년 상반기 체감경기가 전년 대비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36.9%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32%로, 호전될 것이라고 본 기업은 31.1%였다.

업종별 응답을 보면 광주지역 수출 비중 1위와 2

위를 차지하고 있는 'IT·전자'와 '자동차(부품)' 업체를 비롯, '철강·금속가공' 업종은 내년도 상반기 수출여건이 올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봤다.

이처럼 내년 제조업과 수출기업 등 지역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얼어 붙은 것은 전 세계적인 경기 부진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에 여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환율 및 유가 변동 등 경기 불확실성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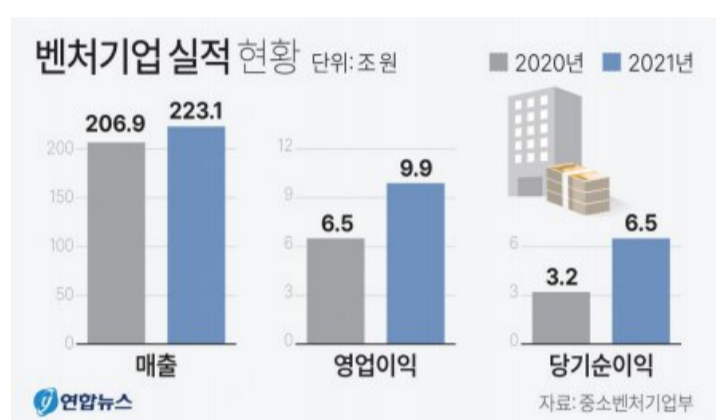
최종만 광주상의 상근부회장은 "미국의 금리 인상, 생산원가 상승과 환율 및 물가 불안이 가중되면서 지역 제조업체들의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있다"면서 "고금리가 지속되고 경기 둔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기업의 선제적 대응과 정부의 안정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기웅 기자 pbxer@kwangju.co.kr

벤처기업 총매출 223조...재계 2위 수준

지난해 기업당 평균 매출 59억...전년비 11.9% 늘어

전체 벤처기업의 매출액이 200조원을 훌쩍 넘어 재계와 비교하면 삼성 다음 가는 수준으로 조사됐다. 종사자는 삼성·SK·현대차·LG 등 4대 그룹 고용인력보다 11만명 넘게 많았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지난해 말 기준 벤처기업 3만7686개의 경영성과 고용, 연구개발(R&D), 해외 진출 현황 등을 분석한 '2022년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지난해 전체 벤처기업의 매출액은 223조원으로 전년보다 7.8% 증가했다.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59억원으로 11.9% 늘었다.

벤처기업 매출액을 대기업과 비교하면 삼성(311조원)에 이어 재계 2위 수준이다. 현대차(204조원), SK(169조원), LG(147조원) 등을 상회했다.

벤처기업 매출액은 2010년부터 삼성에 이어 2위 수준을 유지했다.

벤처기업의 영업이익은 9조9100억원으로 전년보다 52.1%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6조4600억원으로 104.1% 증가했다.

기업당 평균 영업이익은 2억6300만원으로 57.5%, 평균 당기순이익은 1억7100만원으로 111.1% 각각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벤처기업 종사자 수는 83만4000여 명으로 전년 말보다 2.1% 늘었다. 2002년 말 조사 대상은 벤처기업 3만9101개였다.

이는 삼성(26만7000명), 현대차(17만5000명), LG(16만명), SK(11만8000명) 등 국내 4대 그룹 전체 고용인력(72만명·상시근로자)보다 11만명 넘게 많은 것이다.

벤처기업은 지난해 1만7000여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다. 기업당 평균 종사자 수는 22.1명으로 5.7% 증가했다.

벤처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3.2%로 대기업의 1.9배, 중견기업의 3.2배, 중소기업의 4.6배였다.

벤처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은 17만7000여 건으로 국내 지식재산권(59만2000여 건)의 약 30%를 차지했다.

10대 업종별로 보면 음식료·섬유·비금속·기타제조업종이 20.2%로 가장 많고 이어 기계·자동차·금속(16.6%), 도소매·연구개발·기타서비스(13.7%) 등 순이었다. 평균 업력은 10.6년이며 수도권에 59.9%가 있었다.

/연합뉴스



고향사랑기부금 전달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왼쪽 2번째)은 29일 전남도청을 찾아 '광주·전남(愛)사랑카드' 이용금 일부로 마련한 성금 1억3200만원을 전남·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광주은행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13억9000만원을 이상품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지역에 전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폭설 피해업체에 1000억원 긴급 지원”

광주은행이 기록적인 폭설로 손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긴급 대출 지원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광주·전남에서 폭설로 손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개인 고객 등이다.

대출 규모는 총 1000억원으로,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한다. 긴급 경영안정자금에 신규 지원 500억원과 만기 연장 500억원으로 구성했다.

지원 대상에게는 최대 1.0%포인트까지 금리를 감면해준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별도 원금상환 없이 1%포인트의 대출금리 감면을 적용해 기한 연장하고, 분할상환금 유예도 시행한다.

개인 고객은 최대 20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0%포인트 감면의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광주은행은 피해업체들에 대한 금융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피해지원 종합상담반을 운영한다. 모든 영업점에도 폭설 피해고객 전담창구를 운영함으로써 현장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경영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피해지원 종합상담반을 통해 계속해서 피해 상황을 점검해 추가적인 지원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춘 광주은행 영업추진부장은 “최근 폭설로 인해 손해를 입은 업체에 신속한 금융지원을 시행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피해 복구 지원에 주도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코스피·코스닥, 폐장일까지 급락 마감

코스피 2개월만에 2250선 밑으로...코스닥도 2% 하락

올해 증시 마지막 거래일인 29일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2%가량 급락하며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4.05포인트(1.93%) 내린 2236.40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가 증가 기준 2250선 밑으로 내려간 것은 10월26일(2249.56)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이 5769억원, 외국인이 1436억원을 각각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부추겼다. 개인은 6716억원을 순매수하며 방어에 나섰다.

이날 국내 증시 급락은 중국의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하고, 내년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된 데 따른 영향을 받았다.

리오프닝 이후 중국 내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고, 미국·일본 등이 중국인 입국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경제 재개 불확실성을 키웠다.

전날 미국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1.10%),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지수(-1.20%), 나스닥지수(-1.35%)가 모두 하락하고, 애플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것도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쳤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3.08포인트(1.89%) 내린 679.29에 마감했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이 1387억원, 기관이 498억원을 각각 순매도했다. 개인은 1872억원을 순매수했다.

이날 하루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거래대금은 각각 5조9708억원, 4조7460억원이었다.

원·달러 환율은 4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일 증가보다 2.5원 내린 달러당 1264.5원에 거래를 마쳤다.

보통 연말에는 수출업체의 네고(달러 매도) 물량이 우위를 나타내지만, 환율 하락에 따른 저가매수 물량도 나와 하락을 지지했다.

달러 가치가 아시아 시장에서 간밤 상승세를 반납한 것은 환율에 하락압력으로 작용했다.

오후 3시 30분 현재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45.60원이다. 전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946.73원)에서 1.13원 내렸다.

국고채 금리는 이날 일제히 상승했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5.1bp(1bp=0.01%포인트) 오른 연 3.719%에 장을 마쳤다.

10년물 금리는 연 3.726%로 5.3bp 상승했다.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6.9bp 상승, 3.1bp 상승으로 연 3.745%, 연 3.809%에 마감했다.

20년물은 연 3.685%로 6.1bp 올랐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6.4bp 상승, 6.2bp 상승으로 연 3.683%, 연 3.686%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농촌으로 간 효성 친환경 기술 제품들

효성티앤씨 등 5개사 참여
농산물 건조기·태양광 설비 등
초등학교·경로당 등에 전달

효성이 28일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에 효성의 친환경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후원했다.

친환경 제품 지원에는 ㈜효성,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 등 5개사가 함께했다.

효성티앤씨는 재활용 폴리에스터 원사인 리젠으로 제작한 티셔츠를, 효성첨단소재는 탄소섬유(TANSOME)로 제작된 농산물 건조기를, 효성화학은 친환경 소재인 폴리케톤으로 제작한 식민, 그리고 효성중공업은 사업과 연관 있는 태양광 발전 설비를 지원했다.

이번 사업은 농어촌과 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이루어졌다. 지원 대상은 효성 창업주 조흥제 회장의 생가가 위치한 경남 함안군 북 지역의 초등학교, 경로당, 마을회관 등이다.



효성 조현준 회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농어촌 지역에서도 친환경 제품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더 많은 친환경 제품이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효성은 계열사별로 친환경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효성화학은 지난 10월 청주동물원과 함께 국가보호종 동물의 ‘행동공부화’ 활동

을 통한 생물 다양성 보전 활동을 실시했고, 효성첨단소재는 전주시와 함께 ‘전주물꼬리풀’ 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주사인 ㈜효성과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은 거제시와 함께 해양보호생물 잘피숲 보전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기웅 기자 pbxer@kwangju.co.kr

↓ 코스피	2236.40(-44.05)
↓ 코스닥	679.29(-13.08)
↑ 금리(국고채 3년)	3.719(+0.051)
↓ 환율(USD)	1264.50(-2.50)